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성 연구

김희정

가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

목적 :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가정인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공격성과 스트레스를 통한 정신건강상태를 연구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개광역시, 4개 도에 거주하는 135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과 스트레스는 t 검증, 일원배치분산 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요인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체 공격성은 3.05점이었고 언어적 공격성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는 3.66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은 연령에 따른 언어적 공격성($p=.031$)과 분노표출($p=.043$)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전체공격성($p=.028$)과 하위영역인 신체적 공격성($p=.049$), 언어적 공격성($p=.000$), 분노표출($p=.036$), 적대감표출($p=.042$), 스트레스($p=.01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성이 있었고($F=57.139, p<.001$), 경제적 수준에서 나쁨($p<.01$), 스트레스($p<.01$), 연령에서 10세($p<.01$), 연령에서 13세($p<.01$)에서 공격성 정도에 71.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은 연령과 경제적 수준,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있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공격성, 다문화가정, 스트레스

I. 서론

한국은 타 국가와 다르게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과 결혼적령기를 놓친 남성들의 외국인 배우자 선정

등으로 외국인노동자 가정, 한 부모 외국인 가정, 국제결혼이주자 가정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한국사회가 더 이상 한민족으로 유지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으며 다양한

교신저자: 김희정(w330929@hanmail.net)

접수일: 2017. 11. 30. 심사일: 2017. 12. 10. 게재승인일: 2017. 12. 26.

인종,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서로 융화되어가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Yoon, 2017).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가 176만명을 넘어섰고 총 인구의 3.4%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가정에 있는 외국인주민 자녀수는 191,459명으로 외국인주민수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많은 다문화가정이 형성되고 이러한 가정의 형태는 이제 익숙하게 인지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인의 의식에는 타국가의 인종, 민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현재 다문화가정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유독 한국에서 외국인 배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를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에 소속된 응답자의 40% 이상이 차별의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Chung et al., 2016). 차별에 대한 반응은 인격형성이 끝난 어른보다는 미숙한 아동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들은 공격성이나 스트레스, 또래집단간의 적응, 학교생활의 적응, 부모와의 갈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비교하면 다문화가정 아동이 문제행동징후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불안, 주의력의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Back, 2015).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동이 과다행동문제와 발달상의 문제행동의 발생 빈도가 높고 적응과정의 부적응 가능성도 보인다(Back, 2015).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언어발달의 지연을 경험하고 자아정체감에 혼란도 경험하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따돌림으로 인한 학교의 부적응이 나타나기도 한다(Yang, Park & Kim, 2013).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또래집단, 학교, 가정 등에서는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거나 그 반대인 폭력적 행동이나 과잉행동을 보이는 상반된 행동양상이 나타난다(Park, 201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Davidson & Cardemil, 2009).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서,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고 인지기능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류

문화의 적응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Kang & Kim,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환경적 특성은 개인적, 가정적, 학교 관계적 특성이 긍정적일수록 우울이나 불안증세가 낮아지고 공격성 또한 낮아진다(Lee,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정 내에서 겪게 되는 이중문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은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고 또래 집단과의 불안정적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Mazza, 2008). 공격성의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의 공격적 행동과 미래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노출을 연결시키는 기전은 주로 사회 정보 처리과정 체계에서 연구되어왔다(Dodge, Lansford, Borks & Bates, 2003). 또래 사회 거부와 신체적 학대와 같은 공격성과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다양한 측면의 사회 정보 처리과정을 중단(disruption)하는 것과 같다(Guerra, Hnesmann & Spindler, 2003). 이러한 사회 정보 처리과정 중단은 아동들의 또래 사회 거부와 신체적 학대를 조정하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Dodge et al., 2003; Lansford, Malone & Dodge, 2010). 특별한 측면의 사회 정보 처리과정은 공격과 피해에 노출된 후 중단이 되고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 발달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아동기에서 경험한 심리적 문제는 전 생애에 걸쳐 심리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Mazza, 2008).

최근 결혼이민자들의 건강관련 연구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융합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의 가정인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공격성과 스트레스를 통한 정신건강상태를 연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서 동년 9월까지 4개월 동안 2개 광역시, 4개 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다단계추출법을 이용한 이론적 표본추출법을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 안내를 시행하였고 자발적 참여자를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자는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였고 부모의 동의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전체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표성을 위해서 환경적 영향을 감안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였다. 대상자의 설문은 150명을 실시하였고 결측 응답자를 제거하여 최종 135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1) 공격성(Aggression) 측정 도구

일반적으로 아동의 공격성은 신체적, 언어적 형태로 외부로 표출하는 외현적 공격성과 사회적 관계의 손상이 목적인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맞게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표출, 적대감표출이 20문항으로 개발된 Seo & Kwon(2002)의 공격성 검사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5지 선다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87였다.

2) 스트레스(stress) 측정 도구

개인의 능력 한계를 넘어선 내적인 또는 외적인 요구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될 때 경험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한다. 아동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발달이 완료된 성인의 스트레스와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Min & Yoo(1998)의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였고 본 연구에 부합되게 수정하였다. 문항은 부모와 관련된 문항, 친구와 관련된 문항, 학업과 관련된 문항, 교사와 관련된 문항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적은 10문항을 제외한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는 리퀴드 5점 척도로 수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높음을 의미한다($r=.79, p<.001$).

3. 자료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과 스트레스는 각각의 정규성 검사를 통하여 모수검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t 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요인을 알기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N=135)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93	69
	Female	42	31
age	8 years	25	19
	9 years	31	23
	10 years	30	22
	11 years	13	10
	12 years	22	16
	13 years	14	10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parent job	only father	53	39
	only mother	21	16
	working together	61	45
academic background of father	middle school	25	19
	high school	93	69
	university	17	12
academic background of mother	middle school	12	9
	high school	107	79
	university	16	12
Economic status	bad	19	14
	middle	83	62
	good	33	24

Ⅲ. 연구 결과

1. 다문화가정 아동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는 총 135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아동이 93명(69%)로 많았고 연령은 9세(23%)가 가장 많았고 부모직업 유무는 맞벌이가 61명(45%), 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93명(69%), 모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07명(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83명(62%)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2. Degree of Stress and Aggress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ategory	Mean (SD)
Aggression	3.05(0.77)
Physical aggression	3.48(0.72)
Verbal aggression	3.69(0.65)
Anger	2.11(0.21)
Hostility	2.61(0.83)
Stress	3.66(0.95)

Table 3. The Difference of Stress, Aggression and Sub-areas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gression <i>M(SD)</i>	Sub-areas of Aggression				stress <i>M(SD)</i>
			PA <i>M(SD)</i>	VA <i>M(SD)</i>	Anger <i>M(SD)</i>	Hostility <i>M(SD)</i>	
Gender	Male	3.10(0.58)	3.59(0.45)	3.81(0.36)	2.35(0.58)	2.68(0.75)	3.78(0.24)
	Female	3.16(0.52)	3.57(0.66)	3.64(0.29)	2.47(0.52)	2.96(0.71)	3.69(0.37)
		<i>p</i> =.813	<i>p</i> =.884	<i>p</i> =.502	<i>p</i> =.411	<i>p</i> =.124	<i>p</i> =.722
age	8 years	2.96(0.62)	3.45(0.98)	3.10(0.87)	2.52(0.43)	2.78(0.45)	3.59(0.25)
	9 years	3.00(0.44)	3.34(0.89)	3.21(0.66)	2.59(0.48)	2.86(0.58)	3.31(0.16)
	10 years	3.23(0.41)	3.64(0.83)	3.87(0.62)	2.82(0.57)	2.59(0.86)	3.86(0.67)
	11 years	3.09(0.51)	3.58(0.79)	3.96(0.69)	2.37(0.77)	2.48(0.51)	3.99(0.66)
	12 years	3.10(0.51)	3.69(0.81)	3.99(0.45)	2.51(0.51)	2.22(0.76)	3.57(0.27)
	13 years	3.20(0.48)	3.55(0.84)	3.89(0.57)	2.37(0.21)	2.99(0.79)	3.95(0.98)
		<i>p</i> =.235	<i>p</i> =.095	<i>p</i> =.031*	<i>p</i> =.101	<i>p</i> =.043*	<i>p</i> =.049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parent job	only father	3.16(0.41)	3.35(0.88)	3.75(0.74)	2.67(0.31)	2.85(0.71)	3.79(0.21)
	only mother	3.11(0.52)	3.28(0.69)	3.76(0.72)	2.63(0.52)	2.78(0.75)	3.88(0.28)
	working together	3.04(0.56)	3.32(0.79)	3.69(0.65)	2.57(0.37)	2.58(0.38)	3.92(0.35)
		<i>p</i> =.412	<i>p</i> =.821	<i>p</i> =.822	<i>p</i> =.730	<i>p</i> =.125	<i>p</i> =.432
academic background of father	middle school	3.05(0.51)	3.54(0.77)	3.68(0.58)	2.36(0.40)	2.64(0.67)	3.39(0.17)
	high school	2.98(0.59)	3.50(0.73)	3.64(0.48)	2.30(0.71)	2.51(0.59)	3.28(0.19)
	university	3.01(0.35)	3.61(0.67)	3.71(0.37)	2.34(0.54)	2.38(0.50)	3.77(0.63)
		<i>p</i> =.803	<i>p</i> =.456	<i>p</i> =.419	<i>p</i> =.811	<i>p</i> =.125	<i>p</i> =.072
academic background of mother	middle school	3.09(0.84)	3.55(0.67)	3.71(0.54)	2.35(0.56)	2.74(0.58)	3.68(0.28)
	high school	2.95(0.71)	3.49(0.68)	3.69(0.61)	2.33(0.55)	2.28(0.71)	3.62(0.64)
	university	3.06(0.60)	3.52(0.59)	3.80(0.20)	2.29(0.89)	2.65(0.78)	3.71(0.34)
		<i>p</i> =.732	<i>p</i> =.811	<i>p</i> =.407	<i>p</i> =.817	<i>p</i> =.078	<i>p</i> =.721
Economic status	bad	3.39(0.88)	3.87(0.38)	3.91(0.34)	2.99(0.46)	2.79(0.55)	3.98(0.22)
	middle	3.01(0.69)	3.76(0.47)	3.86(0.38)	2.23(0.53)	2.22(0.45)	3.11(0.54)
	good	2.65(0.59)	3.31(0.55)	3.04(0.38)	2.20(0.55)	2.10(0.68)	3.24(0.61)
		<i>p</i> =.028*	<i>p</i> =.049*	<i>p</i> =.000**	<i>p</i> =.036*	<i>p</i> =.042*	<i>p</i> =.011*

* <.05, ** <.01

PA: Physical aggression, VA: Verbal aggression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tres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Variables	Aggression				
	Total	PA	VA	Anger	Hostility
Stress	.376*	.502**	.652**	.127	.203

* <.05, ** <.01

PA: Physical aggression, VA: Verbal aggression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Aggress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ategory	B	S.E	β	t	p
(Constant)	6.328	1.521		0.979	.027
age(13years)	.477	.896	.401	.965	<.01
age(10years)	.435	.724	.512	.845	<.01
Stress	-1.773	.681	.139	1.336	<.01
Economic status(bad)	2.261	.927	.070	2.275	<.01
Adjusted R^2			.714		
F(p)			57.139(.000)		

2.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과 스트레스 정도의 비교

다문화가정 아동의 전체 공격성은 3.05점이었고 언어적 공격성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는 3.6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공격성, 스트레스 비교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한 공격성과 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연령에 따른 언어적 공격성 ($p=.031$)과 분노표출($p=.043$)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전체공격성($p=.028$)과 하위영역인 신체적 공격성($p=.049$), 언어적 공격성($p=.000$), 분노표출($p=.036$), 적대감표출($p=.042$) 그리고 스트레스($p=.01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4.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과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전체공격성과 하위영역에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에서 유의미한 양적 상관성이 나타났다(Table 4).

5.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성이 있었고 ($F=57.139, p<.000$), 경제적 수준에서 나쁨($p<.01$), 스트레스($p<.01$), 연령에서 10세($p<.01$), 연령에서 13세($p<.01$)에서 공격성 정도에 71.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고찰

전 세계는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 이후 10년간 자신이 출생한 나라 밖에서 생활 및 거주를 하고 있는 다국적 이민자가 약 2억 명에 달한다(Suarez-Orozco & Suarez-Orozco, 2009). 전 지구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이 새로운 시대의 상황은 다양한 인종, 민족성, 사회 계층, 성, 종교, 도시 문화, 농촌 문화, 그리고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 가능함을 의미한다(Sinagatullin, 2003).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양극성을 가진다. 이민자들에게는 스트레스를 받는 삶이 생겨나고 만성적 스트레스인자에 노출된 아동들은 다양한 범위의 정신 건강 문제 즉, 걱정, 우울, 외현화 행동문제를 나타낼 위험이 증가하였다(Shih, Eberhart, Hammen & Brennan, 2006). 많은 문헌에서 또래 피해의 표적, 또래

의 거부, 또래 공격성의 표적이 된 아동들은 발전적으로 뚜렷한 스트레스인자를 가져 표적이 되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Prinstein, Cheah & Guyer, 2005; Miller-Johnson, Coie & Maumary-Gremaud, 2002).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에게서 전반적인 공격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령별 공격성과 경제적 수준에서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공격성은 10세와 13세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최고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의 최고학년에서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인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고 경제적 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와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공격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경제적 수준이 나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공격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동 공격성에 환경적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환경적 변화는 아동의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단일문화 나라로 여겨져 온 나라중 하나로 이후 인종의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비록 한국이 서양보다 이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현재는 문화위계가 한국 사회 안에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화위계는 성인 이민자 뿐 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경험을 하게 된다(Jang, 2010).

문화위계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조장하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는 아동이 스트레스 환경에 처했을 때 공격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병리학에 대한 일반적인 요소로서 가장 보편적인 소견이라 할 수 있다(Lengua, West & Sandler, 1998). 부정적 정서는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두려움, 화, 슬픔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아동의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Rothbart, Ahadi, Hershey & Fisher, 2001).

부정적 감정을 초래하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어머니가 받는 차별이 그들 자녀의 정신적 조절과 얼마나 관계 있는지를 개념화하는데 유용하다(Pearlin, 1989).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서, 중요한 스트레스 인자는 다른 스트레스 상황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 양육 행동, 아동의 정신적 조절과 연계되어 있다

(Tran, 2014).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신체적 차이, 언어 기술, 정체성 형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초기 중재 없이 자부심(self-confidence) 소실과 같은 감정 문제는 근심을 초래한다(Choi, 2012).

다문화가정은 많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문화적 차이가 문제를 일으킨다. 의식주에 관한 다른 문화는 부부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의사소통의 부족이 문제를 일으킨다. 적절한 소통 없이는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와 고용으로부터 소외되어진다. 셋째, 가족 폭력과 불협화음으로 이혼율이 급증한다. 넷째, 아동을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 다섯째, 대부분 이민자들은 수입이 적은 계층에 속해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 여섯째, 여성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모성 건강에 대한 위협율이 높다. 일곱째, 순수 혈통에 대한 지지가 이민자들의 편견과 차별을 일으킨다. 다양한 문제점은 아동들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Seol, Kim, Kim, Yoon & Lee, 2005).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의 긍정적인 감정과 자아개념을 기르기 위해 적극적인 초기 중재 프로그램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아동의 심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야 하고 교육형태의 변화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에 의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학습부진, 부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동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의 개입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Yoon, 2017).

본 연구의 제안점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의 국적에 대한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서 동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2개 광역시, 4개 도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 135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첫째,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전체 공격성은 3.05점이었고 언어적 공격성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는 3.66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공격성은 연령에 따른 언어적 공격성($p=.031$)과 분노표출($p=.043$)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전체공격성($p=.028$)과 하위영역인 신체적 공격성($p=.049$), 언어적 공격성($p=.000$), 분노표출($p=.036$), 적대감표출($p=.042$), 스트레스($p=.01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과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전체공격성과 하위영역에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에서 양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성이 있었고($F=57.139, p<.000$), 경제적 수준에서 나쁨($p<.01$), 스트레스($p<.01$), 연령에서 10세($p<.01$), 연령에서 13세($p<.01$)에서 공격성 정도에 71.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신건강상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개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

- Back, Y. M. (2015). The Comparison Study of Ego Development an Psychological Symptom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and Korean Family Children in Rural Area.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4*(1) 39-57.
- Choi, E. M. (2012). *The present state of affairs in art therapy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Lesley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 Chung, H. S., Kim, Y. S., Yi, T., Kim, H. M., Choi, Y., Park, G., Tong, C., Hwang, J. & M., Lee, E. (2016).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Davidson, T. M., Cardemil, E. V. (2009).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involvement in Latino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9*(1), 99-121.
- Dodge, K. A., Lansford, J. E., Burks, V. S., & Bates, J. E. (2003). Peer rejection and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 374-393.
- Guerra, N. G., Huesmann, L. R., & Spindler, A. (2003). Community violence exposure, social cognition, and aggression among urb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5), 1561-1576.
- Jang, H. J. (2010). *The Interactions between Kindergarten Children from Native Korean and Multicultural Families: Construction of Their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Each Other*. Arizona State University. Degree Doctor of Philosophy.
- Kang, Y. I., & Kim, B. S.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Attach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to Mothers and theirs Psychosocial Adjustments : The Intervening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es and Negative Coping Mechanism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1), 19-42.
- Lansford, J. E., Malone, P. S., & Dodge, K. A. (2010). Developmental cascades of peer rejectio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and aggression during middle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 22*, 593-6020.
- Lee, D. H. (2010). Factors Affecti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3), 77-96.
- Lengua, L. J., West, S. G., & Sandler, I. N. (1998). Temperament as a predictor of symptomatology in children; addressing contamination of measures. *Child Development, 69*, 164-181.
- Mazza, A. (2008). Effect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well-being :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Miller-Johnson, S., Coie, J. D., & Maumary-Gremaud, A. (2002).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and early starter models of conduct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3), 217-230.
- Min, H. Y., & Yoo, A. J. (1998).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coping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7), 83-96.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present-condition investigation of Foreign residents.
- Park, K. G. (2011). A Study on the Support plan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n local area: In perspective on the Gangwon province.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11*(1), 193-213.
- Pearlin, L. I. (1989). The sociological study of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241-256.
- Prinstein, M. J., Cheah, C. S. L., & Guyer, A. E. (2005). Peer victimization, cue interpretat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preliminary concurrent and longitudinal finding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4*(1), 11-24.
- Rothbart, M. K., Ahadi, S. A., Hershey, K. L., & Fisher, P. (2001). Investigations of temperament at three to seven years: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 1394-1408.
- Seo, S. G., & Kwon, S. M. (2002). Brief report :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 Seol, D. H., Kim, Y. T., Kim, H. M., Yoon, H. S., & Lee, H. K. (2005). *A study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 Immigrant Women*. Material fro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hih, J. H., Eberhart, N. K., Hammen, C. L., & Brennan, P. A. (2006). Differential exposure and reactivity to interpersonal stress predict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5*(1), 103-115.
- Sinagatullin, I. M. (2003). *Constructing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diverse society*. Lanham, Md: Scarecrow Press.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 Sage Publications.
- Suarez-Orozco, M. M., & Suarez-Orozco, C. (2009). Globalization, immigration, and schooling. In Banks JA(Ed), *The Routledge international compan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62-76. New York: Routledge.
- Tran, A. G. (2014). Family contexts: Parental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chil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3*(1-2), 37-46.
- Yang, S. Y., Park, S. K., & Kim, M. S. (2013). Effects of B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on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6), 270-282.
- Yoon, G. S. (2017). A Study of the Cause on Child Abuse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its Countermeasures : Based on the Case Studies.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preserve, 2*(1), 121-139.

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Aggression and Stress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im, Hee-Jung,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ya University

Purpose : This article was to study mental health status through aggression and stres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marriage immigrant and to use them as baseline data.

Method : We used questionnaire and collected them from 135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live in 2 city and 4 do. Frequency Analysis was used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test and one-way ANOVA for aggression and stress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the factors.

Result : The first, the total score of aggression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3.05 and the most high score was verbal aggression, 3.69. Stress was 3.66.

The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ggression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verbal aggression($p=.031$) depending on age and anger($p=.011$).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otal aggression($p=.028$) depending on economic level and physical aggression($p=.049$), verbal aggression($p=.000$), anger($p=.036$), hostility($p=.042$), and stress($p=.011$).

The third, we analysed the factors affecting aggress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resulting from stepwise regression analysis($F=57.139$, $p<.001$), the results showed a strong explanation of aggression by bad in economic status($p<.01$), stress($p<.01$), 10 years in age($p<.01$), and 13 years in age($p<.01$).

Conclusion : Aggression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as caused by age, economic level, and stress.

Key words : Aggression, Multicultural Families, Stress